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170 호

2017 년 12 월 1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Fair Player Club 반부패 세미나 개최 안내 (EU – 12/5, 중국 – 12/20)
2. '지속가능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노력' 조찬 포럼 결과 보고 (11/17)
3. Fair Player Club 반부패 독일 세미나 결과 보고 (11/21)
4.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반부패 서약 안내

■ 본부 소식

1. 전세계 리더들, COP 23에서 파리기후협약의 가속화를 논의하다
2. [UNGC 사무총장 기고] COP 23, 기업들에게 '일상적인 비즈니스(Business-As-Usual)'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다
3.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혁신 사례

- 빈곤을 퇴치하고, 농작물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작은 농장, 인팜 (InFarm)

■ SDGs 소식

1. [Goal 4, 7]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KEB 하나은행
2. [SDGs 시장 기회]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Intelligent Cyber Security)
3. UNGC '글로벌 기후행동 플레이북 2018 (GLOBAL CLIMATE ACTION PLAYBOOK 2018)' 발간

■ 회원사 뉴스

1. 임수경 한전KDN 대표, 올해의 여성경영인 선정
2. 결제만 해도 환경 살리는 '그린카드' 유엔도 놀랐다
3. 에쓰오일, 사회적책임·지배구조 우수기업 대상

■ CSR 뉴스

1. "친환경 기업이 수익 재무성도 좋아... 수년간의 통계가 증명"
2. [인터뷰] "사회적가치실현법은 양극화 해소 위해 꼭 필요"
3. 한국, 기후변화대응능력 58위로 '최하위' 기록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17년 연회비 납부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Fair Player Club 반부패 세미나 개최 안내 (EU – 12/5, 중국 – 12/20)



행사 개요 일시: 2017년 12월 5일 (화)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장소: 서울 스퀘어 빌딩 3층 컨퍼런스룸
 주최: 주한EU대표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NK)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주관: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GCEF)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3:00-13:30	30' 등록
	13:30-13:45	15' 개회사 -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표부 대사 - 스펀-에릭 바덴버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부장 -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NK) 사무총장
	13:45-14:15	30' 발표: EU 반부패 규제 정책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조엘 이보네 주한EU대표부 공사참사/박사/수석정무관
	14:15-14:45	30' EU 반부패 규제 정책 Q&A
	14:45-15:15	30' 발표: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ACRC) 정탁금지제도과 과장
	15:15-15:45	30'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Q&A
	15:45-16:00	15' 커피 브레이크
	16:00-17:00	60' 사례 발표: 준법윤리경영 모범 사례 - 유럽기업의 한국지사
	17:00-17:10	10' 페어플레이어클럽 소개 및 반부패 서약 안내 - 안철라 강주현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GCEF) 상임대표
	17:10-17:20	10' 페어 플레이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소개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NK) 팀장/책임연구원
	17:20-17:30	10' 마무리 및 폐회

*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세미나 신청 바로가기\]](#)



한국중국상회,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오는 12월 20일 (수)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중국 CSR 및 반부패 동향>을 개최합니다.

중국에 진출·투자하는 우리 기업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중국 CSR·자선법 및 반부패 법제 및 정책 소개, 준법·윤리경영 가이드라인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부패 리스크 방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본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은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전 세계 24개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중 유일한 한국 프로젝트로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살린 현장 중심의 준법·윤리경영 교육, 연구, 자가진단(Self Assessment) 등 다양한 인식제고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사 개요 일시: 2017년 12월 20일(수) 14:00 - 17: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B2F)
 주최: 한국중국상회,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관: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시간	프로그램
13:30~14:00	30' 등록 및 네트워킹 리셉션
14:00~14:10	10' 개회사/축사 - 俞海燕(위하이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중국국제상회 한국대표부 수석대표 및 한국중국상회 집행회장 -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14:10~14:40	30' 중국 정부의 CSR 법과 제도 동향 - 钟宏武(중홍우), 중국 사회과학원 CSR 센터장
14:40~15:10	30' 중국 기업의 사회 책임 및 반부패 동향 - 국제상공회의소 중국국가위원회 '기업 책임과 반부패' 책임자 (TBC)
15:10~15:40	30' 아시아 및 중국 반부패법의 특징과 시사점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 책임연구원
15:40~15:50	10' 휴식 (Coffee break)
15:50~16:50	60' 기업 사례 발표-TBC
16:50~17:00	10' 페어플레이어클럽 소개 - 안젤라 강주현,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

*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中國韓國商會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 신청 바로가기\]](#)

2. '지속가능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노력' 조찬 포럼 결과 보고 (11/17)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7년 11월 17일(금) 더 플라자 서울 메이플홀에서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과 대회 공식후원사, UNGC 회원사 대표 및 각국 외교사절 등 70 명을 모시고 [UNGC CEO 조찬 포럼] "지속가능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노력"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조찬포럼은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행사를 구현하기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비전과 활동, 우수 평창 지속가능성 파트너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장은 환영사에서 "2017년 7월 UNGC 한국협회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올림픽 행사 준비, 개최 및 사후 관리의 전 과정에서 환경, 사회, 경제를 포괄하는 지속가능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많은 UNGC 회원사가 대회 준비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더 많은 UNGC 참여기업 및 관련 기관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동건 회장은 "UNGC 조찬포럼이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대회와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국내 기업들의 혁신적이고 우수한 지속가능성 사례 발굴의 기회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95 개국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올림픽임을 언급하고, 문화환경평화경제 ICT 올림픽을 향한 조직위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지난 11 월 13 일 유엔 총회에서 대회기간 전후 동안 분쟁을 중지하는 내용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휴전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의 올림픽 정신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남녀 선수의 비율이 각각 52%와 48%를 차지해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졌다고 말하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지속가능성 아젠다로 '양성평등'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성평등 올림픽' 실현을 위한 조직위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UNGC 회원사이자 평창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인증기업인 KT 와 한국코카콜라의 기업 지속가능성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 이선주 KT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의 ICT 올림픽 구현을 위해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5G 서비스와 평창군 의야지마을에 조성한 '평창 5G 빌리지'를 소개했습니다.

이선주 센터장은 "'평창 5G 빌리지'는 기가(GiGA) 네트워크와 IT 솔루션으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이다. KT 는 이미 기가 인프라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솔루션을 임자도와 대성동, 교동도, 뱅령도, 청학동 그리고 방글라데시에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경기장뿐만 아니라 '5G 빌리지'에서 관광객들이 5G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올림픽 이후 지역 침체와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국민기업 KT 로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기여하고, 올림픽 폐막 후에도 평창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연사로 구남주 한국코카콜라 이사의 평창동계올림픽 연계한 물환원 프로그램인 '통합적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구남주 이사는 "코카콜라는 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지속가능경영 활동 중에서도 수자원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코카콜라사는 '글로벌 물환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0 년까지 코카콜라 전제품에 사용되는 물의 양과 동일한 양의 물을 지역사회에, 지역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100%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식수 저수지 유역권을 여러 파트너 기관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 것이 통합적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골자이다. 특히 지역사회 내 깨끗한 수자원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시민사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이 UNGC 한국협회와 평창조직위가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을 소개했습니다. 이은경 책임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올림픽 참여 기업/기관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소개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홍보 캠페인', '평창동계올림픽대회 SDGs 이행 사례집' 등 캠페인 활동 현황과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본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과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구현을 위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각계 리더들의 지식과 혜안을 제시하는 [UNGC CEO 조찬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사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 문의 |

소 완 연구원

wso@globalcompact.kr

3. Fair Player Club 반부패 독일 세미나 결과 보고 (11/2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한독상공회의소와 함께 11월 21일(화)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준법, 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은 프로젝트 3차 년도를 맞이하여 주한외국대사관 및 외국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외국계 기업 및 해외 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반부패 법과 기업 벤치마킹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독일 세미나에서는 지멘스(주)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 워크숍을 마련하여 지멘스(주)의 준법윤리경영 노력을 설명하고, 40여개 기업의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을 통한 공동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본 행사는 김종갑 지멘스(주) 대표이사/회장 및 한독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종갑 지멘스(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페어플레이어클럽 프로젝트 운영 경험을 우리 기업들에게 공유하여 엄격한 준법윤리경영을 요구하는 독일 기업의 방침에 대응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주요 선진 산업국들에서는 이미 투명한 기업환경 촉진을 위한 법적 기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보다 선제적으로 글로벌 반부패 법과 정책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독 양국 간의 수출입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독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페어플레이어클럽 독일 세미나를 통해 우리 기업이 독일 법과 글로벌 반부패 기준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요른 엘브라트(Joern Elbracht) 김앤장 변호사와 한성욱 딜로이트 이사의 강연과 김혜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상무, 박종근 지멘스(주) 윤리경영 실장의 기업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른 엘브라트 김앤장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반부패 기조에 발맞춰 독일 정부 차원에서 주요 반부패 관련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상장 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서 자사의 준법윤리경영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비교하여 독일의 반부패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개하면서 형사 책임에 따른 벌금에 상한선을 두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개인의 순이익에 근거한 벌금 산정으로 벌금의 규모가 훨씬 크며, 부패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자에게도 엄중한 형벌이 가해짐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독일 기업들은 연방 정부에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등록되면 공공조달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부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한성욱 딜로이트 이사는 반부패 사건과 관련된 국가 간의 공조가 증가하는 가운데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글로벌 차원에서 통합되고 있으며, 새로운 법과 형사 책임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반부패 법을 강화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한성욱 이사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운영 단계를 설명하며 국내 기업은 제한적인 자원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운영되는 방어적인 컴플라이언스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부패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국제 표준인 ISO 37001 을 참고하여 자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임팩트 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어진 기업사례 발표에서 김혜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상무는 독일 자동차그룹 다임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및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2004 년 미국의 FCPA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이래 전 세계 법인과 계열사에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자사의 컴플라이언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나 분야에서 별도의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현장 방문 및 사업 파트너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닝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혜원 상무는 “준법, 윤리경영의 기본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고 좋기에 지킨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박종근 지멘스(주) 윤리경영 실장은 지멘스가 FCPA 벌금 1 위 기업에서 준법윤리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평가 받게 된 데에는 ‘예방, 발견, 대응’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패 리스크를 관리하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와 책임이 강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멘스에서 시행 중인 선물과 접대에 대한 사전승인 톨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준법 분석을 소개하며 다양한 리스크 파악과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유형의 부패를 관리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박종근 윤리경영실장은 지멘스에 우수한 부패 방지 시스템이 존재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통해 리스크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예방과 대응을 이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의 다양한 반부패 가이드라인 자료에 대한 소개와 국내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분석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국내 기업은 고위 경영진 보고 및 관리 감독 강화, 반부패 정책 및 프로그램 구체화, 인센티브 제도 강화, 사업 파트너의 반부패 프로그램 적용 강화, 공시 강화의 노력을 통해 자사의 준법윤리경영 시스템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은 오는 12월 5일 주한 EU 대표부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함께 EU 세미나를 개최하며, 12월 20일에는 한국중국상회,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함께 중국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울러,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에 동참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4. 페어플레이클럽(Fair Player Club) 반부패 서약 안내



페어플레이(Fair Play) 반부패 서약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준법·윤리경영 민간협력 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클럽(Fair Player Club)에서는 Fair Play 반부패 서약을 통해 한국의 산업별 준법·윤리 경영 증진 활동에 동참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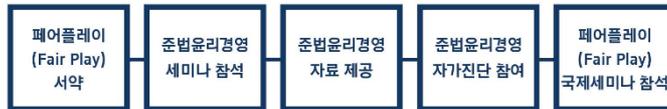
페어플레이클럽은 세계은행과 독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24개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15년부터 3년간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살린 현장 중심의 준법·윤리 경영 교육, 연구 및 다양한 인식제고 확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차 년도는 전자정보통신, 자동차, 기계, 철도, 해외건설, 의료산업 등의 산업협회와 협력하여 산업별 리스크 예방 및 준법·윤리경영 역량강화를 지원하였으며,
- 2차 년도는 7대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및 지역상공회의소와의 민간협력을 통해 지방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반부패와 준법·윤리경영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 올해는 유럽·아시아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스웨덴, 영국, 독일, EU, 중국, ASEAN)와 함께 해외 진출 한국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확립과 공급망 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어플레이클럽은 3차 년도를 마무리 하며 정부 유관 부처 대표, 1차~3차 년도 공동주최기관 및 서약 참여 기업 임직원을 모시고 "Fair Player Club 반부패 서약 선포식"을 오는 2018년 3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반부패 서약에 동참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FPC 참여 기업 혜택 및 기대효과

- 반부패 관련 국제 기준(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UK 뇌물수수법 등) 소개 및 국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대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민간협력을 통한 준법·윤리경영분야 교류 확대
-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식/세미나 참석 후 수료증 제공, 해당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노력에 대한 국내외 홍보
- 준법·윤리경영 자기진단 툴 및 관련 자료 제공



주최: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주관: GCEF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페어플레이클럽 사무국 | www.fairplayerclub.kr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과 글 주임 연구원 / 소 완 연구원
 T. 02-749-2182/2149 | F. 02-749-2148 | E. fpc@globalcompact.kr

사단법인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오지호 대리 / 김아름 연구원
 T. 02-714-5964 | F. 02-749-2148 | E. infogcef@gmail.com

[\[페어플레이 서약서 다운로드\]](#)

본부 소식

1. 전세계 리더들, COP 23에서 파리기후협약의 가속화를 논의하다



정부, 기업, 시민 사회 그리고 UN 리더들이 독일 본(Bonn)에서 개최한 'COP 23/CMP13: 기후를 위한 배려 고위급 회담'에 모여 파리기후협약(Paris Climate Agreement)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secretariat)이 공동 개최한 본 행사는 2019 년 개최되는 기후 정상회의(UN Secretary-General's Climate Summit)을 위한 기업들의 참여 방안에 중점을 둔 고위급 회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회사에서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2020 년까지 각국 정부들의 더 큰 역할을 기업들이 촉구하기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더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고, 또 기업가로서 행동하는 방식 전반에서 기후행동이 반영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2 년 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협약들이 충분히 시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넘어 더 큰 목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2020 년에는 파리기후 협약보다 더 강력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니아 세루이라투(Inia Seruiratu) 피지(Fiji) 수산임업부 장관/고위급 기후 챔피언(High-Level Climate Champion)은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들과 비정부 기구들이 나서서 진척

상황을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마라케시 파트너십(Marrakech Partnership)의 수용을 권장했습니다. 이어 세루이라투 장관은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의 사례를 언급하며, "발전은 경제적 이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환경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은 무책임한 발전입니다. 또한, 심각한 사회적 영향력을 동반하며 인류에게 해를 입히는 발전 또한 무책임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2020 년을 위한 기업 기후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주류 기업들이 여전히 기존과 같은 시나리오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인 리더들은 의지와 행동을 가속화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일상적인 것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새 시대를 보다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2018 세계 기후 플레이북(Global Climate Action Playbook 2018)'이 공개되었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를 포함한 협력기관들과 유엔글로벌콤팩트가 공동 출간한 해당 발간물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2020 년까지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의지와 행동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책자에는 국가감축목표(NDCs)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업데이트 및 유용한 도구와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고위급 회담에서는 파웰 살렉(Pawel Salek) 폴란드 환경부 장관, 앤드류 스티어(Andrew Steer) 세계자원연구소 대표, 라이젤리 니콜(Rajjeli Nicole) 옥스팜 태평양 지역 책임자, 마헨드라 싱이(Mahendra Singhi) 인도 달미아 시멘트(Dalmia Cement) 그룹 CEO 가 참석하여 발언했습니다.

- [원문보기](#)

2. [UNGC 사무총장 기고] COP 23, 기업들에게 '일상적인 비즈니스(Business-As-Usual)'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다

본 기사는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이 2017년 11월 24일 [허프포스트](#)지에 기재한 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존 관행을 벗어나는 기후행동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된 연간 유엔 기후 컨퍼런스 COP23의 '[기후를 위한 배려 고위급 회담\(High-Level Meeting of Caring for Climate\)](#)' 개최사에서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기업들에게 이같이 부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행을 벗어난다'는 말과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될 때, 우리는 기업이 문제를 저질렀다는 뉴스를 예상합니다. 그러나 구테헤스 사무총장이 언급한 이 말은 전 세계 기업들이 기후 문제에 있어서 '일상적인 비즈니스 관행'에서 벗어나, 각 정부들에게 정책적 목표 확대를 요구하라는 적극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다가올 약 1,000일은 세계적 공동체가 기후와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회입니다. 2016년 파리기후협약의 채택과 시행 후, 기업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새로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혁신과 친환경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은 COP 23에서 구테헤스 사무총장이 강조했던 것처럼, 정부와 협업하여 기후 정책 행동을 확대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사의 기후 전략들을 검토하고 더 야심찬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일상적이지 않은 비즈니스(business unusual)' 라고 일컬어왔습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의 발표는 점차 늘어가는 기후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업들이 리더로써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인식을 청중들에게 재고시켰습니다.

저에게 COP 23은 한달 간 여정의 정점이었습니다. 방문했던 많은 국가들 중에는 탄자니아와

케냐가 있었는데, 그 지역 협회들과 미팅 후, 저는 두 가지 결론에 다 달았습니다. 첫째, 동아프리카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프리카의 기업들은 저탄소와 회복성을 갖춘 미래를 주도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 2030로 가는 길을 열다

인류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지역은 지속가능발전 확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기회와 더불어, 아프리카 내 국가들이 직면한 지속가능발전 도전과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급증하는 인구, 개선되고 있는 교육환경, 성장하는 중산층, 도심주거지 및 주택의 필요성과 더불어 늘어나는 재생 에너지와 지속가능 인프라는 아프리카 대륙의 장기적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좋은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기업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로부터 오는 기회들은 약 12조 달러의 시장 기회 규모를 갖게 될 것이며, 아프리카에서만 8,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잠재력을 드러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진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 완화, 교육, 보건, 적정 가격의 주택, 지속가능 농업과 새로운 기술들을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매우 시급하지만, 저는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우수 기업들이 미래 세대들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 발전에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가 정신과 책임감, 그리고 청렴성에 대한 전례 없는 의지를 가진 비즈니스 리더들은 일상적인 관행들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인들은 자사의 기업 모델을 바꿔나가고, 글로벌 목표를 위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아프리카 비즈니스, SDG 혁신의 선두에 서다

UNGC에 가입한 아프리카 회원국들 중 약 85퍼센트는 글로벌 목표를 인지하고 그들의 전략과 사업을 통해 해당 목표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기업들은 글로벌 목표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 15-24세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인 이곳에서, 저는 자신의 젊음을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투자하는 몇몇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또한 헬스케어 및 공학 같은 성장 산업군의 기업들이 성 불평등 이슈에 맞서 내놓은 창의적인 해결책에 대해 들었습니다.

탄자니아와 케냐에 머무는 동안, 저는 그 해결책에 동참하고 싶어하고 비즈니스가 글로벌 목표에 대한 국민적 대화의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유엔글로벌콤팩트로부터 재생가능한 에너지 분야의 비즈니스 리더십을 인정받아 [SDG 선구자](#)로 선정된 [패트릭 고위](#)는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탄자니아협회의 이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탄자니아협회와 탄자니아 유엔개발계획(UNDP)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행사는 탄자니아 협회가 글로벌 목표를 주제로 개최한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는 2030 아젠다 촉진을 위한 탄자니아 기업들의 SDGs 기여도를 살펴보고, 파트너십 및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저는 금융 부문이 어떻게 SDGs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가난한 사람들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한 혁신을 지속하는지 배웠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케냐에 있는 동안에 CEO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내재화하고 글로벌 목표를 그들의 기업 전략에 통합하는 것에 대한 각자의 소감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기업이 갖는 고용주와 공동체 리더라는 두 역할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업들은 환경 영향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 및 폐기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기후 스마트 공동체'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가 글로벌 목표들, 그 중에서도 기후에 관한 목표 13 을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 기고의 시작점이었던 피지 대통령 주최의 독일 본 COP 23 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곳에서 저는 기후 변화를 관리하는 방법을 혁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과 비국가 활동가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동아프리카에서 '일상적인 비즈니스'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리더들과 나눴던 대화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프리카가 단독으로 글로벌 목표를 이뤄낼 수 없듯이, 기업들도 세계의 도전 과제들을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후 변화와 늘어나는 불평등, 빈곤과 기아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기후 변화에 있어서 공공 부문은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를 이끌어내고, 본에서의 합의 사항보다 더 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2020 년까지 다가올 몇 년은 야심 찬 기후 행동과 재원을 동원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행동 계획은 지속가능발전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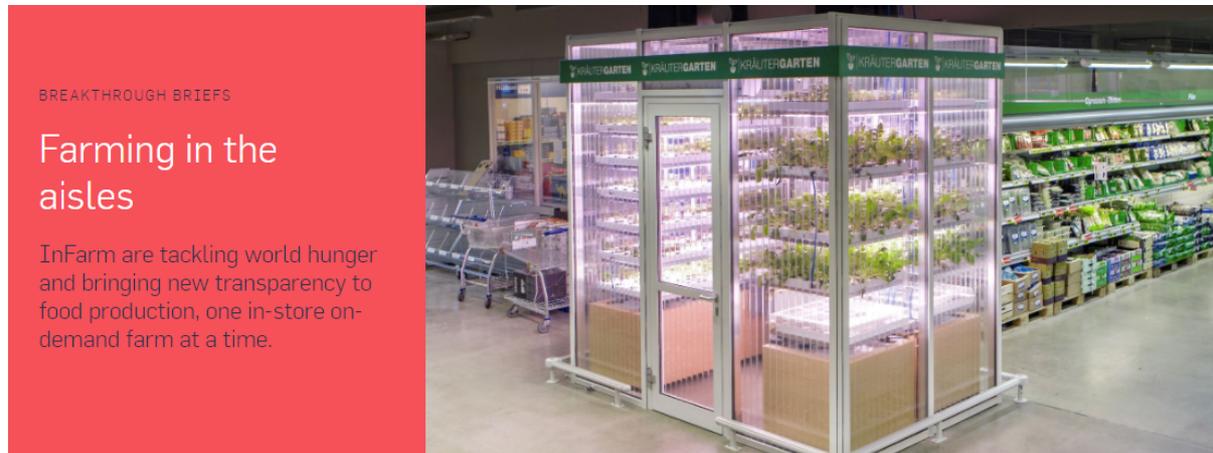
9,500 개 이상의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 기업들을 대표해 사무총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도전과제를 받아 들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비롯한 모두에게 관행을 벗어나 현재의 기후 및 지속가능발전 전략들을 더 널리, 빠르게, 함께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

- ['글로벌 기후행동 플레이북 2018\(Global Climate Action Playbook 2018\)'](#)에 대해 더 알아보기
- ['저탄소 탄력 발전으로 가는 길\(Pathways to Low-Carbon and Resilient Development\)'](#)에 대해 더 알아보기
- [원문보기](#)

3.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혁신 사례

- 빈곤을 퇴치하고, 농작물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작은 농장, 인팜 (InFarm)



인팜(InFarm)은 매장 내 주문형 농장을 통해 빈곤 퇴치와 식품 생산 과정의 투명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 리더: 에레즈 갈론스카(Erez Galonska), 가이 갈론스카(Guy Galonska), 오스넷 미카엘리(Osnat Michaeli)
- 장소: 독일 베를린

베를린-크로이츠베르크(Berlin-Kreuzberg)의 어느 한 앞마당.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를 위한 식량 공급에 기여하겠다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도시 중심부에 초효율적 실내 '[수직농장\(vertical farms\)](#)'을 만드는 인팜의 임직원들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도시 인구의 투명하고 다양한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설립된 [인팜\(InFarm\)](#)은 초소형 수직농장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지닌 무농약·고품질 농산물을 일년 내내 재배합니다. 또한 운송, 보관 및 냉장 과정을 없애고 쓰레기를 줄여 환경적 우위도 확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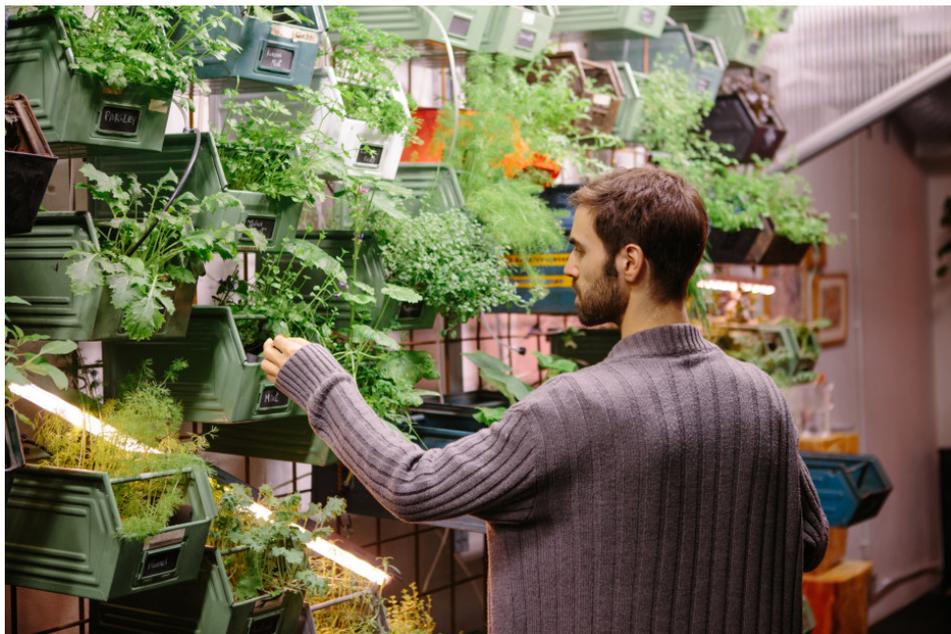
에레즈 갈론스카, 가이 갈론스카 형제와 오스넷 미카엘리는 2014 년 처음 베를린에 도착해 인팜을 창립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먹거리를 직접 키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자립적인 삶을 원했고, 여기서 영감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같은 문제들을 느끼지만 이런 문제들을 어쩔 수 없는 일 혹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입니다.”

세 동업자들의 수경 재배 시스템은 베를린 노이쾰른에 위치한 집 안 거실에서 처음 지어졌습니다. 이는 '시골로 이사 갈 필요 없이 자유와 신선함을 얻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춥고 눈이 내리던 2 월이었는데, 집 안에서는 신선한 채소가 자라고 있었죠. 첫 파이프 수경재배 정원에서 인팜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카엘리는 그들의 첫 수확물을 맛보자마자 폭 빠져들었습니다. "열정적인 요리사이자 미식가인 저는 이국적인 허브와 신선한 채소들을 사실상 끝없이 길러낼 기회에 강하게 끌렸습니다. 공급 과정을 견뎌내기에는 너무 연약해서 마트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독특하고 맛있는 품종들이 많거든요."

그 해 여름, 세 사람은 개조한 오래된 에어스트림 트레일러를 타고 유럽을 일주할 계획이었습니다. 대신, 인팜의 창립자들은 [프린제시넨가르텐\(PrinzessinnenGarten\)](#) 앞에 트레일러를 주차해 놓고 수직농장을 설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관심을 끌고 성공하자 인팜의 사업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현재 푸드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운이 좋았죠. 그건 저희가 즐기는 일이고, 또 바람대로라면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인팜을 통해 전 세계적 공동체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인팜 팀은 2015 년 요리사들이 즐겨 찾는 [베를린 메트로 캐시 앤 캐리\(Metro Cash & Carry\)](#) [슈퍼마켓](#)에 첫 매장 내 농장을 선보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곳의 약 5 미터 넓이의 공간에서는 농산물의 신선도와 영양가를 중요시 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품종의 작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투명 온실과 같은 자족적 농산물 센터에서 재배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인팜의 특허 기술인 '성장 트레이(Growth Tray)'에 담긴 고농도 산소수(水) 안에서 자라납니다. 조명 알고리즘은 맛과 영양소를 향상시키고, 마이크로 센서들은 각각의 식물이 최상의 조건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변수를 감시합니다. 언론들은(그리고 힙스터들은) 열광했습니다.

메트로 슈퍼마켓에서의 성공 후, 인팜은 지능형 도시 농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수 천 마일의 농작물 운송 과정이 사라집니다. 또 소비자들은 1년 365일 더 신선하고 저렴한 고품질 농작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카엘리는 설명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인팜은 비교적 신규 시장 내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인팜과 같은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오늘날 소비자들이 먹거리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으며, 식품 공급의 투명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와 자기 자신 모두에게 좋은 음식을 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팜은 첨단 기술 개발로 소비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라는 영양가 높은 농작물을 공급하며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인팜은 이상주의적 사업인가요? 아니면 철저히 수익중심적 사업인가요?' 이 질문에 미카엘리는 "좋은 기업가는 몽상가, 발명가, 그리고 경제학자를 모두 합쳐 놓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현실 세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기 원한다면, 탄탄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소개된 회사 및 사례는 토론과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선별한 것으로, 개별적인 회사나 개인적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영상 보기](#)

SDGs 소식

1. [Goal 4, 7]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KEB 하나은행



SDG 4. 양질의 교육



KEB 하나은행은 미래를 위한 큰 저축, 사람에 투자하는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 받고, 평생학습 기회를 갖도록 국내외에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4 "양질의 교육"을 지지합니다.

KEB 하나은행은 탈북새터민이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탈북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은 워크샵, 특강, 기업체험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금융그룹의 임원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 년도 제 1 기 멘토링 프로그램 중 활동이 우수한 3 명의 북한출신 청년을 선발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무소 "하나원" 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 임직원을 강사로 모집·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저개발국가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 년부터 "Hana Happy Class" 사업을 통해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등 빈곤국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으며, 2017 년도에는 국제 구호단체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캄보디아 빈곤지역인 반타민체에이에 "Hana Happy Class"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 네팔 '마칼루'에 「하나금융그룹 & 엄홍길 휴먼스쿨」을 건립하여, 해발 1,900m 의 험준한 지역에 위치한 열악한 환경으로 제대로 된 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지역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SDG 7.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하나금융그룹은 SDG-7.2 의 2030 년까지 에너지 소비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데에 동참하기 위해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천사 풍력발전소, 그리고 한국동서발전과 고속도로 태양광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 부문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LNG 에 대한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미국내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로 LNG 수출을 위한 액화터미널을 건설하는 미국 Sabien Pass LNG 터미널 개발사업 신디케이트 론에 참여하였고, 일본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등 태양광, 풍력, 바이오발전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투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정에너지 연구 및 선진 인프라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2021 세계가스총회 (WGC2021)”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스총회 (WGC2021)”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친환경 인프라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스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관련 회의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 본 SDGs 우수 이행 사례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발행한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의 수록 내용 중 일부입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p>4 QUALITY EDUCATION</p> <p>2016 2030</p> <p>4.4</p> <p>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대폭 늘린다.</p> <p>The Global Goals ① ④</p>	<p>“SDGs 세부목표 4.4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의 수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p> <p>유네스코(UNESCO)의 ‘1962 전문 및 직업 교육에 관한 권고사항’에서 기술, 직업 교육(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TVE)을 처음 집중 조명하였고, ‘2001 전문 및 직업 교육에 관한 권고사항 개정판’에서는 기술 및 직업 교육이 고용과 취업기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교육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p> <p>1960-70년대 초 개도국을 지원하는 양자, 다자 협력의 핵심 요소였던 기술 발전(Skills Development)과 기존의 기술 및 직업 교육(TVE)을 더한 TVSD는 1996 정책강령과 MDGs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0년 EFA 목표 3번에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생활능력과 학습 촉진에 포함되어 추진되었고, 이에 SDGs에서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p>
 <p>7 AFFORDABLE AND CLEAN ENERGY</p> <p>7.1</p> <p>2030년까지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p> <p>The Global Goals ① ④</p>	<p>“SDGs 세부목표 7.1은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p> <p>인간정주선언(1976)은 위생, 물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기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않고는 개도국의 거주 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고 최초로 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2000년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는 에너지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5년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공동 발간한 ‘MDGs 달성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는 8개 MDGs 달성에 현대적 에너지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설명하였습니다.</p> <p>이에 유엔총회(2010)에서는 모든 이들이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고,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 청정 기술, 새로운 에너지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목표로 유엔 기구에서 노력을 다해야함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011년 반기문 총장과 세계은행 김용 총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Sustainable Energy for All, SE4ALL)를 공동 발족하였습니다. 보편적 에너지 접근 보장, 신재생 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SE4ALL의 목표는 SDGs에도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p>

2. [SDGs 시장 기회]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Intelligent Cyber Security)



인공지능(AI)은 개인과 기업, 기관들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한 발 앞서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기회의 시장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점차 연결되고 있는 세상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험성은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완전히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매 사이버 공격 시 스스로 학습을 하는 적응형 소프트웨어를 통해 늘어나는 데이터 스트림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과 기업, 그리고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이 점차 더 복잡하고 빈번해지면서, 기존의 사이버 보안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보안](#) 기술은 점차 더 복잡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보안 제품들은 끊임없이 학습하는 능력을 위한 적응 알고리즘(Adaptive Algorithm)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위협을 예상하고, 공격에 시시각각 대응하거나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보안 제품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분야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시장의 제품들은 지능적으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 사이버 공격을 즉각적으로 알리는 시스템이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격을 미리 예측하는 제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딥 러닝(Deep Learning) 기기와 시스템들은 실시간 위험성을 평가해 기업과 정부 기관이 위험도가 높은 사이버 공격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딥 러닝은 사물을 식별하며 학습할 수 있는 뇌의 능력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인공지능의 새로운 분야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기업이 클라우드나 기타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관리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MARKET KEY NUMBERS

23%

23%가 사이버 인공지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85%

모든 사이버 공격의 85%가 인공지능을 통해 예측되었습니다.

36%

인공지능 시장 성장 규모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약 36%로 예상됩니다.

[시장 규모 및 수요]

2015 년 인공지능의 글로벌 시장은 1,262 억 4 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2024 년 말까지 3 조 610 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6 년부터 2024 년까지 연평균 36.1 퍼센트의 놀라운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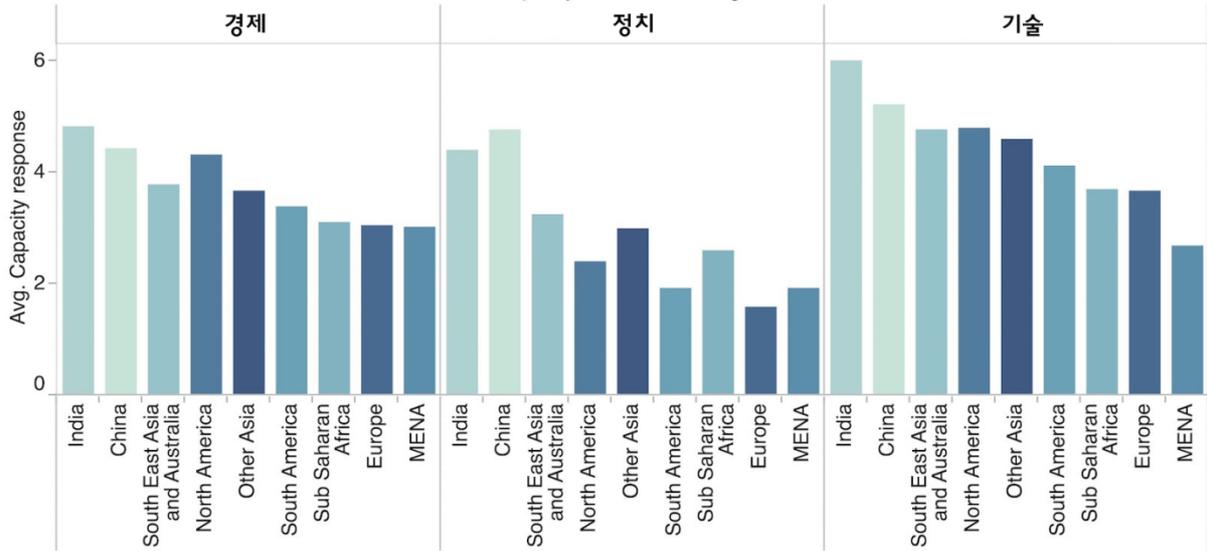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보안 제품들의 수요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에서 업무를 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으로 인해 더 많은 물체들이 통신망 속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요인입니다. 그 밖에 인공지능에 기반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바로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부족입니다. 미국에서만 20 만명 이상의 보안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러한 인력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대신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2016 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기업의 리더들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을 훌륭한 사업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아메리카와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기타 아시아 지역들은 사회적 이점과 사업 추진 가능성 면에서 해당 시장 기회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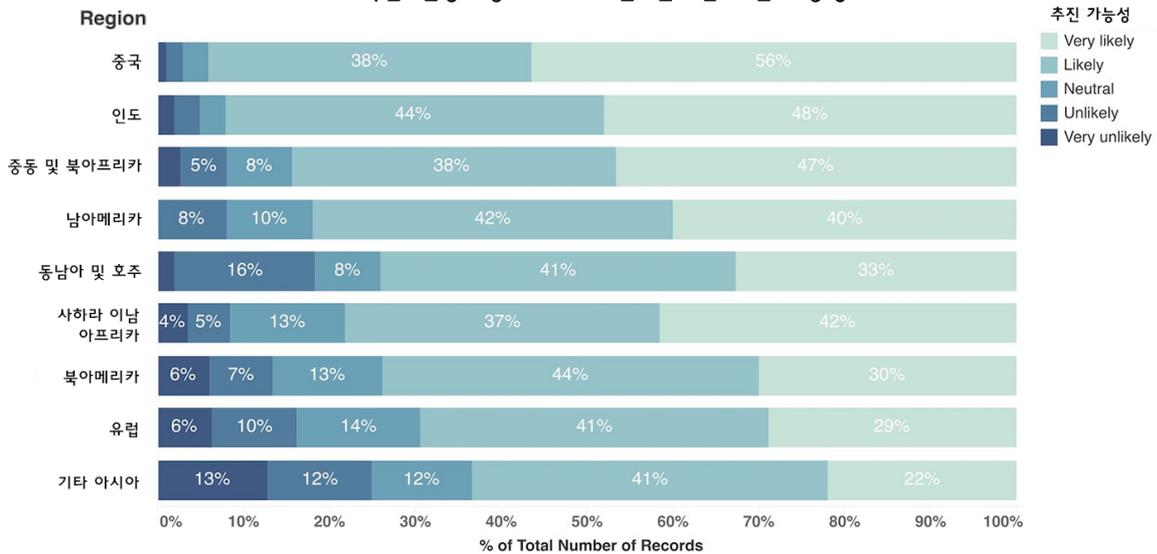
지역별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신사업 추진 능력

Capacity dimension / Region



'지능적 사이버 보안'의 시장 가능성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정치', '기술' 측면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리더들은 이 시장이 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훌륭한 사업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한 사업 모델과 이점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신사업 추진 가능성



특히 북아메리카와 기타 아시아,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와 호주,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속한 기업의 리더들은 대체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산업이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의 시장 기회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 서비스, 그리고 기타 부문에서는 이 기회가 사회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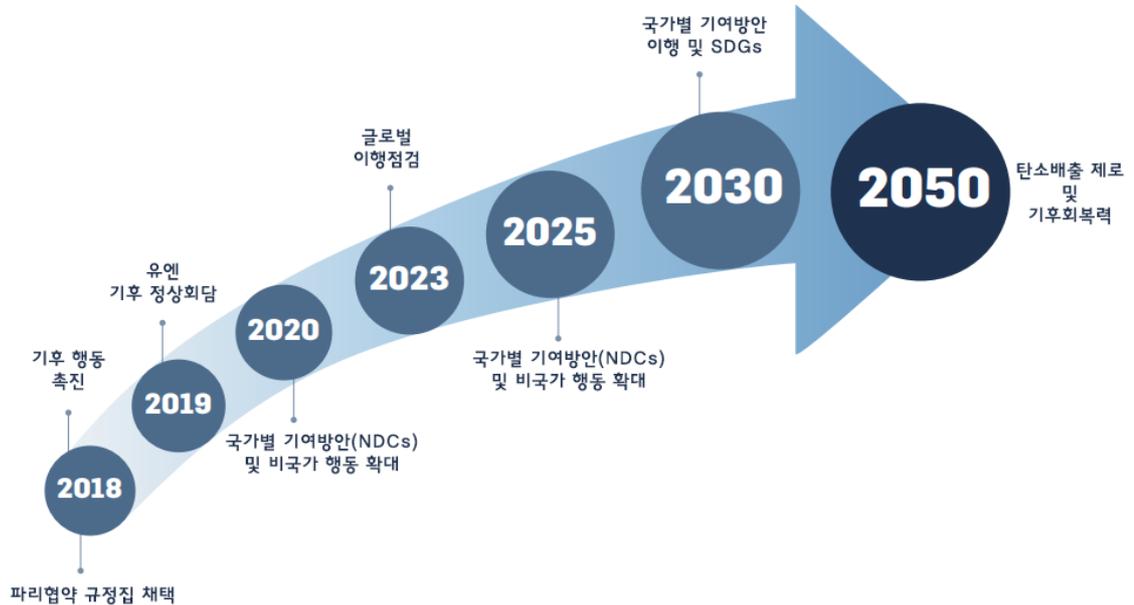
해당 조사결과는 [2017 글로벌 기회 리포트\(Global Opportunity Report 2017\)](#)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서스테이니아(Sustainia), DNV GL 이 함께 참여한 [Global Opportunity Explorer](#)에서 발췌, 번역 및 가공한 자료입니다.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3. UNGC '글로벌 기후행동 플레이북 2018 (GLOBAL CLIMATE ACTION PLAYBOOK 2018)' 발간



글로벌 기후행동 로드맵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전세계 195개국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을 채택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2°C 이하 유지를 목표로 하는 파리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주요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부응해, 12,500개가 넘는 기업, 투자자, 시민사회, 도시 및 지자체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동참하는 서약에 동참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 WRI)와 함께 '글로벌 기후행동 플레이북 2018(Global Climate Action Playbook 2018)'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2017년 새롭게 도입한 '[저탄소 및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길\(Pathways to Low-Carbon & Resilient Development\)](#)' 행동 플랫폼의 일환으로, 기업이 파리협약의 목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관련 기회와 참여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행동 플레이북 2018'의 주요내용을 소개합니다.



기후행동 참여방안 1. 2018년 글로벌 기후변화 행사 참여하기

2018년 COP24 전 까지 국가별 기여방안 향상을 위한 기후 목표를 공유할 행사 기회를 찾아보세요!

다가올 몇 년은 글로벌 기후 행동 이행에 있어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글로벌 기후 행동 정상 회담(California Global Climate Action Summit)과 제 24 차 당사국총회(COP24)가 개최되는 2018 년은 기업과 정부 지도자들이 주목할 만한 기후 회의가 열리는 해로, 기업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 24 차 당사국총회(COP24)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별 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s)을 실천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기후 목표'를 발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민간부문의 참여와 지지는 국가별 기여방안(NDCs)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글로벌 기후행동을 위한 마라케시 파트너십(Marrakech Partnership for Global Climate Action)'을 포함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분야별 목표 달성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 기후변화 행사

분기	행사	장소	날짜
Q1	세계경제포럼 (WEF Annual Meeting)	스위스 다보스	1월 23-26일
	기후리스크에 관한 투자자 서밋 (Investor Summit on Climate Risk)	뉴욕 유엔본부	1월 31일
Q2	세계은행/IMF 봄 회의 (World Bank/IMF Spring Meeting)	워싱턴	4월 20-22일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회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5월 중
	5월 당사국총회(COP) 세션 (May COP Session)	-	-
Q3	UN 고위급 정치 포럼 및 SDG 비즈니스 포럼 (UN High-Level Political Forum & SDG Business Forum)	뉴욕 유엔본부	7월 9-20일
	글로벌 기후 행동 서밋 (Global Climate Action Summit)	샌프란시스코	9월 12-14일
	책임투자원칙 회의 (PRI in Person)	샌프란시스코	9월 12-14일
	유엔 총회 (UN General Assembly Week)	뉴욕 유엔본부	9월 18일 전후
	유엔 민간부문포럼 및 유엔글로벌컴팩트 리더스 서밋 (UN Private Sector Forum &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뉴욕 유엔본부	9월 18일 전후
Q4	제 24 차 당사국총회 (COP24)/ 제 14 차 교토의정서총회(CMP14)	폴란드 카토비체	12월 3-14일
	파리협정 이행점검 - 촉진적 대화 (Facilitative Dialogue)	-	2018년 중



기후행동 참여방안 2. 국가별 기여방안(NDCs)와 연계하기

정부 관계자(경제 또는 환경 부처)와 접촉 시, NDCs 를 활용하거나 언급하세요.

NDCs 중 기업 및 투자자들의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 내세요!

국제금융공사(IFC)에 따르면, 재생가능한 에너지(2,970 억 달러), 에너지 저장시설(25 억 달러), 녹색 빌딩(3,880 억 달러), 기후대응(climate-smart) 도시 교통수단(2,880 억 달러), 물 재활용(230 억달러) 및 지자체 폐기물 관리(1,600 억 달러) 등 기후변화 솔루션 개발을 위해 매년 1 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별 기여방안(NDCs)를 활용한다면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정부의 목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후행동 참여방안 3. SDGs 우선순위와 연계하기

'SDG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The Blueprint for Business Leadership on the SDGs)'(p. 124-131,

Goal 13)을 참고하여 소속 산업을 이끌고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 행동을 연계할 수 있는 활동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각 국가의 경제 발전 진로와 궤를 함께 하며, 국가별 기여방안 (NDCs) 및 SDGs 달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각 국가의 NDCs 와 SDGs 계획, 경제 목표 등을 참고하면, 자사의 기후 목표를 각 국가의 우선 해결과제들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SDG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은?]

유엔글로벌콤팩트는 SDGs 17 개 목표에 입각한 기업 리더십 사례 및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SDG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Business Leadership on the SDGs\)'](#)을 발간하여 기후행동과 연계된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기업이 기후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후에 대한 배려'란?]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07 년부터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함께 ['기후에 대한 배려\(Caring for Climate\)'](#) 이니셔티브를 런칭하였습니다. 기후에 대한 배려 이니셔티브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업의 역할 및 참여를 동시에, 기업 경영자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2017 년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 기후에 대한 배려(Caring for Climate)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는 국내기업 15 개사를 포함해 총 454 개사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영 전략 및 제반 사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기후에 대한 배려 리더십 서약\(Caring for Climate Statement\)](#)'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운영에 있어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온실가스 목표 및 감축 전략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활동 정보를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COP)를 통해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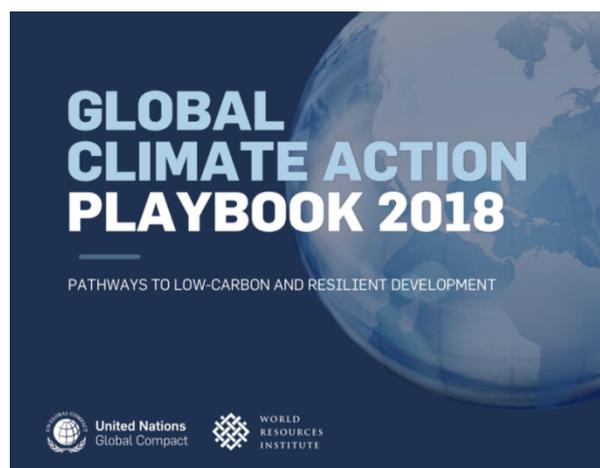
[기후변화와 기업]

많은 기업 리더들이 기후변화와 환경파괴가 새로운 리스크를 야기하고, 기업의 사업 기회와 기업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14 년 발표한 '제 5 차 평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계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하였으며, 생태계에 다음과 같은 4 가지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전망되고 있습니다.

- 폭염, 홍수 등에 따른 생명과 재산 피해
- 극한 기후로 인한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기능 훼손
- 식량과 물 부족
- 생물다양성 및 자연환경 훼손

기후변화는 민간부문의 활동 방식에서부터 사업 환경,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기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기회이자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Global Climate Action Playbook 2018](#)' 바로가기

- [기후에 대한 배려\(Caring for Climate\) 이니셔티브 참여하기](#)

회원사 뉴스

1. 임수경 한전KDN 대표, 올해의 여성경영인 선정



임수경 한전KDN 대표, 올해의 여성경영인 선정



▲ '제20회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기업대상'(이하 좋은기업대상)이 11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 라벤더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의 여성경영인에 선정된 임수경 한전KDN 대표가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 '제20회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기업 대상'의 '올해의 여성경영인' 부문은 우리 사회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 수상자는 임수경 한전KDN대표
- 임수경 대표는 공기업의 유일한 여성 대표로 남녀고용 평등을 위해 차별 없는 고용정책을 수립했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여성 리더십을 보여줌
- 임 대표는 의미 있는 상에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며 "여성 인력 풀을 더욱 넓힐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함

[- 원문보기 \(여성신문\)](#)

2. 결제만 해도 환경 살리는 '그린카드' 유엔도 놀랐다

'서울 Pn

결제만 해도 환경 살리는 '그린카드' 유엔도 놀랐다

입력 : 2017-11-15 23:34 | 수정 : 2017-11-21 17:57

친환경 제품을 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는 '그린카드'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한국 최초로 '2017 유엔 기후 솔루션 어워즈'를 받았다. 유엔 기후 솔루션 어워즈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기후변화 대응 모범 사례를 선정해 주는 상이다.



한국의 그린카드 제도가 14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2017 유엔 기후 솔루션 어워즈'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부문 상을 받았다. 남광희(가운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수상기관 기관장으로 시상식에 참석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그린카드가 ICT 솔루션 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한국 최초로 '2017 유엔 기후 솔루션 어워즈'를 수상
- 그린카드 친환경 제품을 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혁신성을 인정받음
- 출시 후 '최단기가 최다 발급 카드'라는 기록을 만들어 내며, 영국의 '그린월드 어워즈' 최우수상을 받는 등 국내외 금융·카드 분야의 여러 상을 받음
-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전파·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힘

[- 원문보기 \(서울신문\)](#)

3. 에쓰오일, 사회적책임·지배구조 우수기업 대상



에쓰오일, 사회적책임·지배구조 우수기업 대상

기사입력 2017/11/16 09:38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에쓰오일이 사회적책임·지배구조 우수기업 대상을 받았다.

에쓰오일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7년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관하는 ESG 우수기업 시상 제도는 국내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ety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의 투명성 등 지속가능 경영 성과를 종합 평가한다.

에쓰오일은 이번 평가에서 경제뿐 아니라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도 균형 있는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 에쓰오일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7년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국내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의 투명성 등 지속가능 경영 성과를 종합 평가함
- 에쓰오일은 경제와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도 균형 있는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음
- 알 감디 에쓰오일 CEO는 "사회적 생태계와 함께 성장하는 '좋은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원문보기 \(연합뉴스\)](#)

CSR 뉴스

1. “친환경 기업이 수익 재무성도 좋아... 수년간의 통계가 증명”

< 뉴스



[더 나은 미래] "친환경 기업이 수익 재무성도 좋아... 수년간의 통계가 증명"

제주=주선영 더나은미래 기자 | 2017/11/28 03:02

가-

가+



- 탄소 배출량이 적은 지속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운영사 '에토 캐피탈(ETHO Capital)'은 지난 3월 미국 경제 잡지 '패스트컴퍼니'에서 테슬라·구글 등과 함께 '2017년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꼽힘
- 에토 캐피탈의 기조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일수록 재무 수익이 높다'는 것으로, 지난 몇 년간 데이터 분석과 투자를 통해 이를 증명해옴
- 이안 몽로(Ian Monroe) 대표는 "친환경 투자는 미래가 달린 일이 뿐 아니라 좋은 투자 옵션"이라고 말함

[- 원문보기 \(조선일보\)](#)

2. [인터뷰] “사회적가치실현법은 양극화 해소 위해 꼭 필요”

新東坡 프린트 미리보기

피플 [인터뷰]

“사회적가치실현법은 양극화 해소 위해 꼭 필요”

‘문재인법’ 대표 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력 2017.11.26 / 699호(p170~177)

- 근로소득 상위 0.1% 중위소득의 30배
-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안
- 한국 공공성 최하위... OECD 33개국 중 공공성 33위
- 조달 계약 등 통해 민간부문에도 확산
- 야권 실적이 국회 통과 변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가치실현법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높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조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사회적가치실현법’이 수정·발의됨
- 이 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세움
-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사회적가치실현법이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공공성을 높여 모두가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인식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원문보기 ([신동아](#))

3. 한국, 기후변화대응능력 58위로 '최하위' 기록



한국, 기후변화대응능력 58위로 '최하위' 기록

2017-11-17 08:28

기후변화협약 총회,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보고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수요 관리 미흡, 석탄화력발전소 증가 등이 저조한 성적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17일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제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

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되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최하위로 기록됨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 감축에 대한 정책에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음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 [원문보기 \(헤럴드경제\)](#)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1 월 16 일부터 12 월 1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2. COP/COE 제출회원

11 월 16 일부터 12 월 1 일까지 3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수력원자력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 년 연회비 납부 안내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한국협회에 동시 가입한 회원들은 한국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확산에 사용됩니다.

▪ 2017년 4/4 분기 연회비 납부 회원

삼덕통상, 기아자동차, 서울시복지재단,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유엔한국협회, 국민연금, LG생활건강, 일성건설주식회사, 한국투명성기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티비에이치글로벌, 한국언론진흥재단,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 4/4 분기 납부기한: 2017년 12월 30일까지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글로벌콤팩트 가입자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와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연간 기부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COP 또는 COE 가 Active 상태인 회원사에 한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This is our Communication on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nd supporting broader UN goals.</p> <p>We welcome feedback on its contents.</p>
---	---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대일빌딩 15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